

브라질 학생들, 한국 유학 관심 높아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브라질 학생들이 한국 유학길을 찾고 있다.

4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원장 김소연)은 지난달 30일 상파울루 주 캄피나스대학에서 한국유학 설명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 수백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교육원은 지난해부터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도 브라질리아와 남부 포르투 알레그리 시 등에서 유학 상담회를 열었다.

이날 유학설명회에서는 유학 대상 국가로서 한국이 가진 이점과 한국 내 대학 소개, 입학 요건 등이 소개됐다. 행사장 밖에 설치된 부스에서는 한국의 대학들이 보낸 홍보 소책자와 자료를 이용해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유학 상담이 이뤄졌다.

캄피나스 대학 측은 오는 8월 29일 2차 유학설명회 개최를 교육원에 요청했으며,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요청이 오고 있다.

김 교육원장은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대학의 정원 확보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외국의 우수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브라질이 현지 일반 초중고 사립 학교의 1년 학비가 한국 대학의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학들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 미국 제재에 원유 물물교환 검토

이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원유수출 봉쇄를 회피하기 위해 농산물과 일용품 등을 이란 원유와 물물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원유수출을 계속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측근인 에사크 자한기리 이란 수석부통령은 2일 "원유수출을 줄여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원유와 농산물 등과 물물교환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이란산 원유수출을 막으려 한다면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어 국제 원유 시장이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년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란과 거래한 제3국 기업·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재개하겠다고며 각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전면 금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지난달 기준 하루 평균 약 250만 배럴로 국가 예산의 30% 가까이 원유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수입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는 이란 중앙은행과의 사이에 대금결제야 필요하다. 하지만 대금결제에 관여한 외국은행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유럽 등의 금융기관들은 이란과의 거래를 꺼리게 된다. 하지만 물물교환 시 은행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아도 돼 제재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은 미국과 유럽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받던 2012년에도 원유와 금과 등의 물물교환을 통해 쌀과 홍차를 수입했다.

중국, 레이저 빔 총 개발

스타워즈 같은 공상 과학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저 총이 개발됐다.

3일 '디지털타임스'는 중국 산시 소재 '중국 과학아카데미 광학·정밀기계 연구소'의 연구진이 전방 800m 거리에 있는 물체를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 총을 개발해 시험까지 마무리했다고 홍콩의 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이 레이저 총은 15mm 구경의 소총이며, 무게는 3kg, 조준 사거리는 800m다. 차량이나 보트, 비행기 등에 거처해 사용할 수 있다. 총의 정식 명칭은 'ZKZM-500 레이저 공격용 소총'이며, 구소련제 AK-47 소총과 모양이 유사하다.

총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빔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창문을 투과할 수 있다. 레이저 빔은 사람의 피부와 조직을 순식간에 탄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이 레이저 소총은 양산 준비 단계에 있으며, 처음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중국 무장경찰의 대 테러 부대에 납품될 것으로 보인다.

이 레이저 총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다. 또 완전히 충전하면 1천 발 이상 쏠 수 있으며, 한 발을 쏘는데 2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 레이저 총은 대량생산될 경우 1정당 10만 위안(약 14,000달러)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